

시망

말씀 나눔

2020

07

목상본문
창세기 · 시편

하늘을 여는 기도
주님의 풍성하심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깊어지는 영성
생명의 음료

목상과 삶
영적 침체 극복하기



여름 신앙 강좌

주제 : 이단 이해와 바른 신앙 형성

일시 : 7/17(금) ~ 8/21(금), 10:30~11:50

장소 : 본당

강좌 세부 일정 안내

일자	강사	주제
7/17(금)	권남괘 목사 (부산성시화운동이단연구본부 이단연구실장)	신천지 이해
7/24(금)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이단 바로 알기
7/31(금)	한정운 목사	교회사 속 이단의 특징들
8/7(금)	이경희 목사	기독교 영성 형성과 실습
8/14(금)	한성일 목사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8/21(금)	류현조 목사	건강한 신앙 행복한 삶

contents

July 2020

주님의 풍성하심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2
생명의 음료	4
안식의 오아시스	6

WORD

7	창세기·시편	16
---	--------	----

FAITH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34
내게 찾아온, 용서와 사랑의 기회	70
나는 승리하리라	104
대한수도원	138

CULTURE & CHURCH

내 이웃이 되어 줄래요?	170
기저귀	174
영적 침체 극복하기	178
유림풍정	182
평소대로 아모르파티	184
	188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신 주님,
주님은 신실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났을 때도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되어 후회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강하신 팔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히시며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부끄러운 마음뿐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심을 알기에
열매 없는 모습, 헐벗은 모습 이대로
자비로우신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옷 입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음료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혹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왜 잠잠히 계시는가?’ 이와 같은 물음은 성경 구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가 안 계시가 하였음이더라”(출17:7 중)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 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 물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갈증이 난 무리가 결국 마실 물을 달라며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출17:2 중)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버릇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듯이 하나님께 주문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 열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본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살아 계심을 증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들의 거친 음성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위로부터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그분의 생수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81편 7절은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지’ 시험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폭동은 하나님을 향한 폭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바위가 물을 내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솟아난 물은 반항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응답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결과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물은 분명 이 세상의 물줄기와는 다른 차원의 물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 한가운데 만드신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창조 활동이었습니다. 모세보다 앞서 반석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자 바위가 물을 쏟아낸 것입니다. 마치 창에 찢린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로부터 물과 피가 흘러내렸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위로부터 나온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그분의 생수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는 광야에 있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를 르비딤에서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는 르비딤과 같은 광야 길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음료 되신 성령님을 오늘도 값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소망의 온 교우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식의 오아시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소망 중에 여행을 지속케 하신다.

지친 길손들은 쉬이 필요하다. 황량하고 적막한 땅을 지나 먼 길을 힘들게 걷고 나면 누구나 휴식과 전환이 필요하다. 신앙 여정에서 피곤이란 삶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피곤을 인정해야 하며, 아울러 우리 힘으로 피곤을 이겨 낼 수 없음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시며 소망 중에 여행을 지속케 하신다.

인간의 피곤과 하나님의 소성케 하심이라는 이 주제를 우리는 구약의 위대한 예언적 환상 중 하나에서 볼 수 있다(사40:29-31).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향할 것과 그때 경험할 피로를 내다본다. 그러나 그 피로와 나란히 그는, 하나님이 온유한 손길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본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29-31)*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전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확신을 준다. 그러나 우리 많은 이들은 쉬이나 휴식에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태도의 결과는 애처롭고도 불가피하다. 쉬지 않는 자들은 탈진한다. 대단한 의욕과 열기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 중에는 곧 기력이 떨어져 더 이상 걸음을 지탱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정력과 힘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지만 실은 재충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겸손이나 통찰이 없다.

우리는 왜 휴식에 죄책감이 들까? 쉬는 것이 잘못이라는 느낌은 어디서 온 것일까? 내 경우 한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시간은 선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물론 나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지쳤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밀려나고 있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사라졌다. 너무 바빠 알아차릴 겨

우리는 휴식과 소생의 공간을 내야 한다. 쉽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를도 없었지만 내 영적 생활은 부실해졌다. 뭔가 잘못됐다. 나는 일 중독의 악순환에 빠졌다. 다행히 나는 사태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쉬을 얻음이여”(시62:1, NIV).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원하심을 망각한다. 예컨대 우리 믿음을 소생시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해 주시는 일 등이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공간을 내드릴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필시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밀쳐 낼 것이다. 하나님 임재의 광채를 누릴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창조 작업을 마치고 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쉬에 동참하도록 부르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힘이 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출20:8-11) 바쁘게 사는 자들이 도외시해도 되는 부칙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계명들과 똑같이 중요하며, 우리로 하나님께 공간을 내드리고 그 임재로 새 힘을 얻게 하고자 주신 계명이다. 그냥 두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쉬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기한 점 가운데 하나는 안식이 훈련의 문제라는 것이다. 언뜻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역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거기에는 흔히 간과되는 단순한 진리가 들어 있다. 우리는 휴식과 소생의 공간을 내야 한다. 쉬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장거리 여행을 계획할 때 신중한 여행자는 휴식시간을 잘 안배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 상실과 탈진은 물론 부상이나 죽음 까지도 불러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